

바람,
소리

WISH on the WINDS

판소리 다섯바탕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2019 / 10 / 3 ~ 10 / 6

18th JEONJU INT'L SORI FESTIVAL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주세계소리축제 | 2019.10.02-06

주최  전라북도

주관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World Sori Festival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강도근제 수궁가

이난초, 임현빈



명창 이난초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
1992 남원춘향제 판소리명창부 대통령상수상
2002 프랑스파리 정부초청공연 춘향가 완창발표회
2013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춘향가 완창발표회
2018 제48회 판소리 유파 대제전 카네기홀 초청공연
현, 남원시립국악단 예술총감독
서울대 강사역임, 남원국악예고 출강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겸임교수

명창 임현빈

한애순, 성우향, 안숙선, 이난초 사사
서울예술대학 졸업
동아콩쿨 판소리 일반부 금상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
국립창극단 단원역임
현, 남원시립국악단 창악부 수석, 목원대학교 출강



강도근은 동편제 판소리의 탄생지라고 하는 남원을 대표하는 소리꾼이다. 그의 <홍보가>는 송만갑 → 김정문 → 강도근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형적인 동편제 판소리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생전에 강도근은 자신이 <수궁가>도 잘하는데, 사람들은 <홍보가>만 잘하는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근의 <수궁가>가 알려진 것은 <홍보가>를 녹음하면서 <수궁가>까지 함께 녹음을 해서 음반으로 출판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강도근의 <수궁가>는 유성준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강도근은 스물다섯 살이 되던 1942년에 구례로 가서 독공을 마친 후, 하동으로 내려가 유성준을 만나 두 달에 걸쳐 <수궁가>를 배웠다고 한다. 유성준의 <수궁가>는 송만갑의 아버지인 송우룡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도 하고, 장재백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송우룡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장재백이 유성준의 외숙이기 때문에 장재백으로부터 배웠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유성준의 <수궁가>는 임방울, 김연수, 정광수, 강도근 등에게 이어져 현대 <수궁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수궁가>는 전승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각기 바디를 달리하여 임방울 바디, 김연수 바디, 정광수 바디, 강도근 바디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강도근의 <수궁가>는 유성준의 <수궁가>를 가장 잘 전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소에 강도근은 늘 ‘자작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도근의 <수궁가>를 이어받은 이난초와 임현빈이 부른다.

이난초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강도근, 성우향, 안숙선에게 배운 바 있으며, 남원과 광주에서 활동하며 이 지역에 제자를 많이 두었다. 임현빈은 한애순, 성우향, 이난초에게 배우고 남원시립국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소리꾼이다. 이난초는 임현빈의 이모이기도 한데, 이들 둘이 부르는 <수궁가>는 잊혀져 가는 <수궁가> 전통의 한 자락을 되살려낼 것으로 믿는다.



고수 이태백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장원

전주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대상(대통령상) 수상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상임 지휘자

현 한밭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목원대학교 한국음악학부 교수

박봉술제 적벽가

송순섭, 이자람



명창 송순섭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1994 전주대사습 판소리 명창부 장원 대통령상

1999 KBS국악대상 판소리 부문 수상

2009 화광문화훈장 수훈

2012 동리대상

2016 이승휴 문화상 예술상



명창 이자람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적벽가' 이수자

판소리뮤지컬 타루, 판소리 만들지 '자' 예술감독 역임

2004 전주대사습놀이 일반부 장원

2007 <사천가>, 2012 <억척가> 제작

2012 흥진기 창조인상 문화부문,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

2014 <이방인의 노래>, <추물>, <살인> 예술감독, 작·작창 참여

더뮤지컬 어워즈 여우주연상 <뮤지컬 서편제>

2016 KBS국악대상 판소리부문, 사야국악상



박봉술은 동편제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전승한 대명창이었다. 박봉술은 송만갑의 판소리를 요절한 친형 박봉래를 통해서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박봉술은 동편제 판소리를 대표하는 소리꾼으로 대접받았다. 그런데 박봉술은 목이 나뻤다. 그래서 한 때 소리를 그만두려고도 했으나 피나는 노력 끝에 암성이라고 하는 가성 발성을 개발하여 소리를 했다.

박봉술의 판소리를 대표하는 판소리는 <적벽가>이다. 이 소리는 현대 <적벽가>를 대표하는 소리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박봉술로부터 많은 사람이 <적벽가>를 전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봉술은 <적벽가>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박봉술의 <적벽가>는 송순섭, 김일구, 정미옥, 안숙선, 박송희, 김영자, 전인삼 등에게 이어졌다. 이들 중에서도 송순섭은 박봉술의 <적벽가>를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송순섭은 박봉술 바디 <적벽가>의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송순섭은 박봉술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적벽가>뿐만 아니라 <홍보가>와 <수궁가>도 전승하여 가르치고 있다. 박봉술의 <적벽가>는 사설이나 음악에서 가장 잘 정리된 소리로 평가되고 있다.

송순섭은 목이 나뻤다. 스승인 박봉술처럼 상청이 나지 않아서 오래 동안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오랜 수련 끝에 마침내 상청 발성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송순섭은 56세 되던 1994년에야 겨우 전주대사습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오정숙 명창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웠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춘향가>와 <심청가>를 완창한 바 있으며, 서울대학교 국악과 2학년에 재학하던 1999년에는 <춘향가> 8시간 완창으로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기도 한 바 있다. 남다른 창의성으로 창작 판소리 분야에서도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학생 때 인연을 맺은 스승 송순섭과 함께 박봉술 바디 <적벽가>를 부르게 되었다. 전통에 충실한 소리를 고집하고 있는 스승과 현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판소리를 지향하는 제자의 만남으로 소리판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고수 박근영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영남대학교 한국학과 박사 수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장원 대통령상 수상

현, 대전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

사대한민국 문화예술단 이사장

박초월제 홍보가

조통달, 유태평양



명창 조통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준 인간문화재 5호

조통달 판소리 전수관 이사장

1972 제8회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1972 판소리 보존회 전국명창대회 1위

1987 남도예술제 대통령상

2017 제27회 동리대상 수상

현,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장



명창 유태평양

2012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부문 우승

2015 중국 국가대극원 개관 7주년 기념 민속예술축제
초청공연

201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미산제 홍보가 완창

2017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2018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념 청와대 축하 공연
현, 국립창극단 단원



박초월제 <홍보가>는 명창 박초월이 새로 짠 <홍보가>를 일컫는다. 박초월은 처음에 김정문과 송만갑으로부터 <홍보가>를 배운 후에 나중에 또 김창환의 제자인 오수암과 오수암의 제자인 최씨, 정광수 등으로부터 <홍보가>를 배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박초월의 <홍보가>는 어려서 김정문과 송만갑으로부터 배운 정통 동편제 <홍보가>에 오수암, 정광수 등으로부터 배운 서편제 <홍보가>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박초월의 <홍보가>는 동서편제 판소리의 특징이 어우러진 소리가 되었다. 박초월은 동편제 판소리의 고음으로 전력을 다하는 창법과 계면조 위주의 슬픈 소리를 특징으로 하는데, ‘서슬’은 박초월 소리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이다. 박초월은 <홍보가> 중에서는 ‘가난타령’부터 ‘박타는 대목’은 특별히 잘 불러 이름을 날렸다.

조통달은 박초월의 친 조카이다. 조통달은 나중에 박초월을 양아버니로 모시고 소리를 배웠다. 그래서 조통달은 누구보다도 박초월의 소리를 잘 이은 제자가 되었다. 조통달 또한 목이 좋아서 박초월 소리의 특징을 잘 사릴 수 있는 소리꾼이다. 그러나 조통달은 남자이기 때문에 슬픈 대목보다는 해학적인 대목에 뛰어나다. 조통달은 홍보가 아니라 놀보에 더 어울리고 놀보 역을 가장 잘하는 소리꾼이다. 그래서 조통달의 <홍보가>는 조통달식 <홍보가>가 되었다.

유태평양은 조통달의 제자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제자이다. 유태평양은 어려서부터 조통달로부터 소리를 배웠으며, 1988년 여섯 살의 나이로 <홍보가>를 완창하여 판소리사상 최연소 완창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유학을 해서 다른 나라의 음악을 배우기도 했으며, 지금은 국립창극단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팝음악에까지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젊은 소리꾼이다. 유태평양은 스승인 조통달을 닮아 해학적인 연기와 소리에 뛰어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태평양은 조통달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조통달과 유태평양이 함께 엮어갈 <홍보가>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수 유휘찬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회원

미국 LA 한국문화원 다회 출연

강산제 심청가

김영자, 최현주



명창 김영자

1985 전주 대사습대회 판소리 부문 장원 대통령상

1992 KBS 국악대상

1994 서울정도 600년 서울시민상

2002 한국국악협회 공로상

현, 전주예술고등학교 출강, 전북대 한국음악과 초빙교수

전문예술법인 온고을소리청 이사장



명창 최현주

제3회 국창 임방울 국악제 대상(국무총리상)

제10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명창

명고대회 명창부 대상(대통령상)

전주MBC 얼썬 우리가락 MC

창극 춘향전 논개 어매아리랑 배비장전등 다수 주연

현,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부수석



강산제 <심청가>란 강산(江山) 박유전으로부터 전승되어온 <심청가>를 일컫는다. 박유전의 소리를 들은 대원군이 ‘네가 제일강산(第一江山)이다’라고 한 데서 강산이란 박유전의 호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박유전의 소리는 정재근에게, 그리고 조카인 정응민에게 이어졌다. 정응민은 큰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리였다가 김세종으로부터 전승되어온 <춘향가>를 김찬엽으로부터 배워서 넣었다. 박유전은 이른바 서편제 판소리의 시조이고, 김세종은 송흥록과는 다른 동편제 판소리의 시조이다. 이렇게 되어 정응민의 소리는 동편제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편제 소리도 아닌 동서편제 소리가 융합된 소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소리들을 구분하기 위해 <춘향가>는 김세종제 혹은 김세종판이라고 부르고,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는 강산제, 혹은 강산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소리를 합쳐 ‘보성소리’라고도 한다. 강산제 판소리는 정응민에 의해 1960년대 초에 정권진, 조상현, 성우향, 성창순 등 일류 소리꾼들에게 전해졌다. 강산제 판소리는 창극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통 판소리를 고수하고 있었다. 또한 성음의 다양한 변화에서 미감을 찾는 성음 중심 혹은 음악 중심의 판소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표하던 창극이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격히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판소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강산제 <심청가>를 부를 김영자 명창의 묵은 흔히 여자 철성으로 일컬어진다. 철성은 동편제 판소리를 대표하는 송만갑, 김정문, 강도근의 묵을 가리키는데, 묵 쉰 소리이면서도 오랜 수련으로 단단해진 고음을 내는 묵 소리이다. 김영자의 <심청가>는 주로 성우향의 소리를 이은 것인데, 성우향은 정응민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판소리를 이은 사람이라고 한다. 최현주는 김영자 명창의 제자로 제10회 박동진 명창,명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창극단에 재직하고 있다. 이번에 부를 강산제 <심청가>를 통해서 김영자 명창과 최현주 명창 두 사제지간의 판소리의 깊은 맛에 심취해 보기를 바란다.



고수 전준호

장흥 가무악 전국제전 일반부 고법부분 대상

장흥 가무악 전국제전 명고부 고법부분 대상(국무총리)

동초제 춘향가

김명신, 정상희



명창 김명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 보유자
2002 공주 전국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 대통령상
제16회 전북예총 하림 예술상 국악부문 본상수상
사)한국국악협회 정읍지부장, 정읍국악원 원장 역임
사)동초제판소리보존회, 완산국악제전진흥회 이사
사)오정전통예술보존회 이사장



명창 정상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동초제 흥보가 이수자
2010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젊은예술인상 성악·판소리
2011 첫 번째 완창발표회 동초제 흥보가
2016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 참방
두 번째 완창발표회 동초제 춘향가
2017 남산골 한옥마을 명인열전 미산제 수궁가
2018 제26회 임방울국악제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



‘동초(東超)’는 김연수 명창의 호이다. 동초 김연수는 여러 명창들로부터 다양한 판소리를 배운 뒤에 자기 나름대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새로 짜서 남겨놓았다. 김연수는 어떤 사람의 판소리를 오롯이 전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짠 판소리는 기왕의 어떤 소리와의 같지 않은 독특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판소리를 바디를 달리 하여 김연수 바디, 혹은 김연수제, 동초바디, 동초제 등으로 부르는 것이다. 김연수의 판소리는 연극적 판소리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춘향가>는 김연수의 판소리 중에서도 가장 김연수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판소리이다.

김연수의 판소리는 오정숙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오정숙의 문하에서 지방문화재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9명이 배출되었다. 김명신은 바로 오정숙의 제자 중에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다.

김명신은 194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생이다. 오수암, 정광수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나, 결혼 후 판소리를 중단했다. 그러다가 1980년 정읍에서 임방울의 제자인 임준옥으로부터 <수궁가>를 배우면서 다시 판소리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최난수에게 배운 다음 오정숙에게 4년에 걸쳐 판소리를 배우고, 2002년에 공주 백제문화제 판소리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05년 마침내 동초제 <흥보가>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김명신은 목이 좀 센 편이나 힘이 좋고 성량이 풍부하다. 그래서 득명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제 올해 일흔넷이다.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을지 궁금하다. 만약 소리를 계속 이어갈 힘이 부족하다면 제자 정상희가 그 다음을 메꿀 것이다.

정상희는 김명신의 제자로 전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2018년 광주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스승은 목이 센 소리꾼이었으나 정상희는 목이 좋다. 애원성에 상하청을 두루 잘 낸다. 감정 표현도 뛰어나다. 이번 공연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목이 센 소리꾼도 목이 좋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고수 김청만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보유자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지도위원 역임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예술감독 역임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역임

2007 보관문화훈장 서훈

현, 사단법인 일통고법보존회 이사장

바람, 소리

WISH on the WINDS

18th JEONJU INT'L SORI FESTIVAL

전주세계소리축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라북도 14개 시·군

2019.10.02-06

주최  전라북도

주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북은행

 KB 국민은행

 WCN

 전북도사가스(주)

 NPS 국민연금

 장수군

 TERRA

 BGF리테일

 VIPS

 이충덕
방짜유기

 주상

 선현

 부안물

 Chunyunco

 호텔

 Kizuk